

# 광주 아파트 낙찰 11개월만에 최다…‘옥석 가리기’ 심화

## 매물 쌓여 147건 경매

두달째 낙찰가율 80%대

낙찰률은 42.2% 그쳐

인기단지 쏠림현상 지속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와 낙찰건수를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급리 속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여전히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낙찰가율 100%에 육박하는 물건이 속속 등장하는 등 회복 흐름을 보였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6년 1월 지지경매 동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147건으로 이 중 62건이 낙찰됐

다. 이는 지난 2025년 2월 경매건수 153건, 낙찰건수 68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낙찰률은 42.2%,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81.4%로 지난 달(83.9%)에 이어 80%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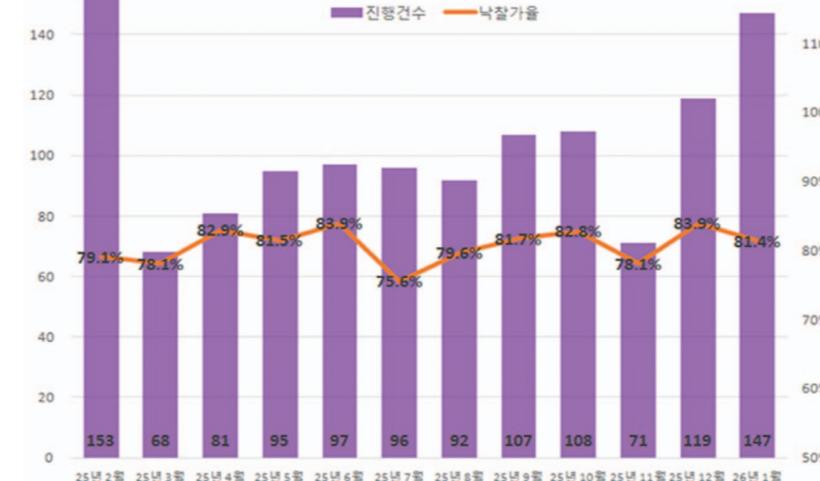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 아파트 경매건수는 176건으로 6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치는 259건을 기록한 지난 2019년 8월이다.

전남 아파트 경매 낙찰건수는 55건으로, 낙찰률 31.3%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3.5%,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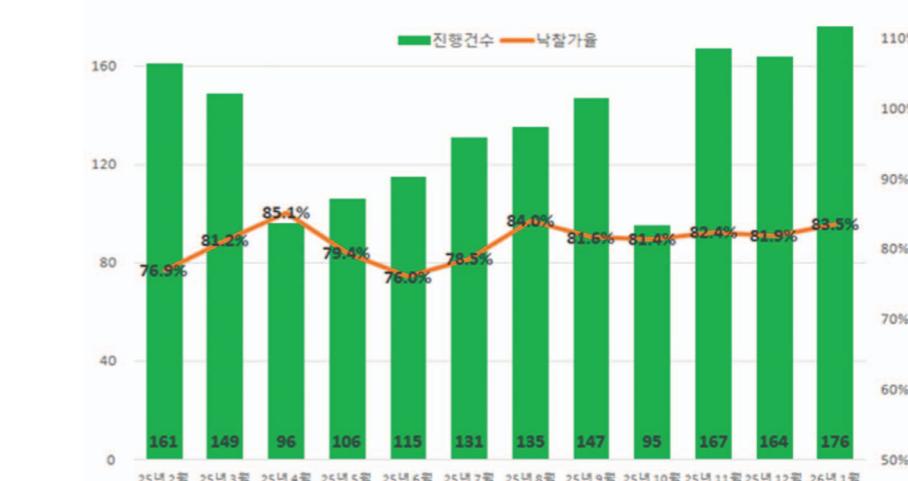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물 자체는 많아졌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매물은 많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선호도

## 광주 아파트 경매 추이



## 전남 아파트 경매 추이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맞두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설맞이 시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광주은행-광은리더스클럽, 온정 나눔

### 복지시설에 위문품 등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아동 시설 ‘혜선바오로의집’, ‘비오로빌’,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서구 소재 장애인 돌봄 시설 ‘희망의집’ 등 총 4개 복지시설에 총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2007년 창립 이후 현재 240여 명의 회원

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복지시설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철홍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은 “광은리더스클럽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지역 현안 해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일선 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취임

## “행정통합시대…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강화”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제21대 박만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의원대회에는 박만 위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대의원과 한국노총 광주지역 유석구 위원장 당선인 및 각 지부 위원장, 정일선 은행장과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박만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에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충실했던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다”며 “새로 취임한 정일선 은행장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밭위에 내일이 기대되는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어 “최근 고금리 정책으로 훼손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을 허락해 준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더욱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선 은행장은 “노동조합과 열린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행 중심의 DNA를 바탕으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은행을 만들겠다”며 “노사 협력이 은행의 경쟁력이 되고, 다시 조합원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여수 석유화학산업 지원 ‘세정 어벤저스’ 출범

광주국세청, 전담반 가동  
여수산단 기업과 ‘핫라인’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한급금 조기지급 등 추진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지원에 박차고 나섰다.

광주국세청(청장 김학선)은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 발대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 1월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전담반은 광주국세청 각 세무별 담당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 간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재기하는 애로사항을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관계부서로 연계하고 신속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은 분기별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신속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여수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앞선 4월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나 매각 유예

를 단력적으로 운영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와 각종 한급금 기능 항목을 기업별로 분석해 맞춤형 개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주요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 서양새마을금고 제50차 정기총회

## “자산 5564억원 기록…안정적 당기순이익 달성”

정도 경영·지역상생금융 강화  
김병내 남구청장 감사패 전달



광주시 서양새마을금고(이사장 김만곤)는 최근 호남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한 해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김만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5년은 상호금융권 전반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서양새마을금고는 자산 556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율·BIS·유동성 비율 등 모두 1등급으로 건전한 경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만곤 이사장은 “지난 한 해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에도 힘썼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과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으로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회의로 진행됐다.

정기총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회의로

결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 정진우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지방의원, 금융권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김만곤 이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남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전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사령의 존도리 쌀 나눔을 통해 관내 경로당과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따뜻한 정성을 전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국토부,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정부가 올해 국비 387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간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일치’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그간 토지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평 모양이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정형화되고 지적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개선을 거쳐 공시지가가 약 20억5000만원 올랐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 222개 지방정부 및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함께 635개 사업자구(17만9천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원이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